

제5절 망양리(望洋里 : 1·2리)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東海)와 접(接)하고, 서쪽은 현종산(懸鍾山)과 삼산2리(三山二里)가 있으며, 남쪽은 국도(國道)를 따라 사동리(沙銅里)와 인접하고 북쪽으로 망양휴게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울진의 대표적 특산물인 오징어를 테마로 오징어거리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관동제일루로 이름난 망양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근남면 산포리로 이진 되었다.

2. 마을의 역사

800여 년 전에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처음 개척(開拓)하였고, 후에 엄씨(嚴氏), 지씨(池氏), 최씨(崔氏)가 입향했다고 전해진다. 대곡천(大谷川)을 경계로 망양(望洋)이라 하였다. 조선 중엽(中葉)에는 평해군(平海郡) 원북면(遠北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箕城面) 망양리(望洋里)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44세대가 거주하며 망양1리에는 78세대가, 망양2리에는 66세대가 살고 있다. 망양1리에는 김해 김씨(金海金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영월 엄씨(寧月嚴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등이 분포하며 망양2리는 울진 임씨(蔚珍林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망양정(望洋亭) 옛터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이곳에 있었으며, 숙종 대왕 때 정철(鄭澈)의 시(詩) 등이 전래(傳來)되고 있으나 철종(哲宗) 9년에 근남면 산포4리로 이진(移建) 되었다. 이후 울진군에서 옛터에 정자를 건립하였다.